

#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의 기능별 사용현황에 관한 고찰

최진희\* · 조남성\*\*

---

## 目次

---

1. 서론
  2. 선행 연구
  3. 조사 대상의 「のだ」 기능
  4. 조사 방법
  5. 조사 결과 및 고찰
  6. 결론과 향후 과제
- 
- 

## 1. 서론

「のだ」<sup>1)</sup>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野田(2001)는 「のだ」에도 습득하기 쉬운 부분과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のだ」 습득이 어려운 것은, 「のだ」의 사용 여부가 문(文) 내의 정보로 결정되지 않고, 문외의 정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논하고 있다. 「のだ」의 사용 여부가 문내의 정보로 간단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습득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どうしてそんなに遠いところに住んでいるんですか。

---

\* 한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 한밭대학교 교수 일본어교육

1) 「の」에 「だ/です/ではない/ですか/ですが」가 쓰인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를 대표하여 「のだ」로 표기한다.

(2) 本町に行きたいんですが、どのバスに乗ったらいいですか。 (野田,2001:118)

(1) 「どうして～んですか」는 이유를 묻는 의문문에 사용된 「のだ」이고, (2)는 「서두」의 기능을 갖는 「～んですが」는 「のだ」가 패턴화한 예이다. 이와 같은 예들은 「のだ」 습득이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のだ」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2005)는 일본어 교과서<sup>2)</sup>에 도입된 「のだ」를 일본어 모어화자 중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のだ」의 자연도를 조사했다.

(3) 明日本をさがしに行きたいんですが、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조,2005:184)

(3)의 경우, 일본어 교사는 「のだ」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본어 학습자는 「のだ」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오용 중에서 「のだ」를 사용해야 자연스러운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비용(非用)의 예이다.

「のだ」의 사용은 일본어 모어화자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のだ」의 사용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실제로 「のだ」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のだ」의 기능에 따라 사용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선행 연구

「のだ」의 습득 연구에서 「のだ」의 기능에 주목한 연구로 大場(1992), 佐々木(1995), 村松(1995), 坪根(1997), 花城(200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목표 언어권인 일본 국내의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모어에 제한이 없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のだ」의 기능 중 「설명」 「서두」가 습득하기 쉽고, 「실정의 제시」 「명령」 「비난」 등이 습득하기 어렵다는 결과였다. 일본 국내의 일본어 학습자들은 문 연결의 기능이 습득하기 쉬우며, 화자 태도 표현의 기능이 습득하기 어려운 경향을 알 수 있다.

한편 花城(2000)의 연구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확인」 「판단」 「서두」 「강조」 「설명」의 순으로 「のだ」의 사용률이 높았다. 「확인」은 본 연구에서는

2)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는 의사소통 기능 함양이 주된 목적으로 기능 중심 교수 요목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스코프의 기능에 분류되는 것이고, 「판단」 「서두」 「강조」 「설명」은 문 연결의 기능에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와 일본어 학습자의 차이가 가장 큰 기능은 「서두」이고,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기능은 「설명」 「강조」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서두

あの一、少し寒いんですが、窓を閉めてもいいですか。

(5)설명

A:どうしたの、そんなにニヤニヤして。

B:バレンタインデーに彼女からチョコレートをもらったの。

(6)강조

A:どうしたの?今日はタバコ吸ってないね。

B:もうきのうも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禁煙しているんです。(花城,2000:44)

「서두」는 일본어 모어화자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の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경우이다. 「설명」 「강조」 보다 「서두」 쪽이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花城(2000)은 「のだ」의 습득은 일본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이라고 결론지었다.

村松(1995)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의 자연 발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のだ」의 오용 원인을 모어의 간섭으로 보고, 일본어와 중국어의 표현상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内와 外」에 관한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のだ」를 사용할 때 보이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일본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개인차를 배제하고 목표 언어권이 아닌 학습 환경을 가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のだ」의 기능별 사용률을 조사하기로 한다.

### 3. 조사 대상의 「のだ」 기능

#### 3.1 「のだ」의 기능

최(2006)는 「のだ」의 기능을 문법화 과정에 따라 분류했다. 「のだ」는 구조적

으로는 「の」에 의해 문을 명사화하며, 기정(既定)의 사태를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のだ」는 문법화에 따라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주관적 의미로, 문 레벨에서 담화 레벨로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のだ」는 「스코프의 기능→문 연결의 기능→ 화자 태도 표명의 기능」의 과정을 거쳐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스코프의 「のだ」는 문을 명사화하며, 하나의 사태에 관련하는 문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갖는다. 명사문과 유사하게 의미적으로 대비성<sup>3)</sup>을 갖으며, 초점이 되는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를 배제하여 그 사태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7)好きだから我慢するんじゃない。

(8)これはあなたに買ったんじゃない。彼に買ったのだ。(작례)

(7)에서 「참다」는 기정 사태에 관계하는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정형의 「んじゃない」는 「좋아서」라는 이유로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8)에서 「샀다」는 기정 사태와 관련하여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당신」이 아니라 「그」에게 산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のだ」가 사용되었다.

문 연결의 「のだ」는 명사화의 「のだ」 기능이 확대되어 선행문맥이나 상황과 어떤 사태를 관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두 사태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문을 연결시키기 위해, 「のだ」가 사용된다.

(9)目が赤いなあ。また泣いたんだ。

(10)彼は会社へ行けませんでした。風邪で倒れたんです。(작례)

(9)는 청자의 눈이 빨간 것으로 보아, 「울었다」는 기정 사태를 추측하여 말하는 경우 두 사태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 「のだ」가 사용되었다. (10)은 회사에 가지 않은 이유로 「감기로 쓰러졌다」라는 기정 사태를 제시하기 위해 「のだ」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のだ」는 두 사태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태도 표명의 「のだ」는 어용론적으로 강화<sup>4)</sup>된 기능으로, 화자의 심적 태도에

3) 명사문은 [X]は[Yだ]의 경우, X의 속성으로 Y가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Y이외의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명사문은 특히 부정의 경우에 동사문과 달리 대립하는 사태가 성립한다고 하는 대비성을 갖는다(野田,1997:49).

4) 의미 변화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신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이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어용론적 강화’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어용론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화자의 해석이 점점 그 말의 의미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의해 기정 사태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선행문맥이나 상황과 어떤 사태를 관련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화자가 기정 사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のだ」가 사용된다.

(11)悪い子供はろうやに入れられちゃうんだよ。(さ)

(12)翌日、待ち合わせのレストランには道子が先に来て待っていた。また遅刻をしたことを謝ると、紘子は席に着くなり切り出した。

「・・・実はここで食事すること、晃次さんにも知らせたんです」(愛)

(11)은 청자에게 「나쁜 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기정 사태를 제시하기 위해 「のだ」가 사용되었다. (12)는 미치코를 만나는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으나 「코지에게 알렸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미치코가 모르는 기정 사태를 얘기해 주는 장면에서 「のだ」가 사용되었다.

이 세 기능은 준체 조사「の」와 「だ」가 문법화해가는 과정에서 발달한 기능으로 문법화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각 기능은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각 기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애매한 단계(ambiguity stage)가 있어 기능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스코프의 기능과 문 연결의 기능, 문 연결의 기능과 태도 표명의 기능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のだ」의 사용 여부가 스코프의 「のだ」는 문 내 요소에 의해, 문 연결의 「のだ」는 문과 문의 관계에 의해, 태도 표명의 「のだ」는 담화 레벨에서 화자의 심적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태도 표명의 「のだ」사용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野田(2001)가 제시한 「のだ」의 습득 난이도와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사용률이 관계한다고 본다. 「스코프의 「のだ」 > 문 연결의 「のだ」 > 태도 표명의 「のだ」」순으로 습득하기 쉬우며, 습득하기 쉬운 순서대로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사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 3.2 조사 대상의 「のだ」 기능

본 연구에서는 「のだ」의 세 기능을 장면별 의미 특성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14범주로 분류하였다. 스코프의 기능을 2범주, 문 연결의 기능을 6범주, 태도 표명의 기능을 6범주로 분류한다.

「のだ」의 기능	「のだ」의 기능에 따른 14범주
스코프의 기능	평서문/ 의문문
문 연결의 기능	설명/ 환언/ 해석/ 서두/ 구체화/ 추론
태도 표명의 기능	실정의 제시/ 교시/ 명령/ 재인식/ 강한 주장/ 인식 강요

### 3.2.1 스코프의 기능

스코프의 「のだ」는 사용되기 쉬운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분류했다. 「평서문」 중에서도 초점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정형을 대상으로 한다.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와 같이 사용되는 스코프의 「のだ」를 대상으로 한다.

#### (13) 평서문

A:そんなに飲み会ばかりしていたら、体を壊しますよ。

B:飲み会に行きたくて、行っている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

#### (14) 의문문

A:久しぶり髪を短くしてみました。

B:どうして、みんなに短く切ったんですか。

### 3.2.2 문 연결의 기능

문 연결의 기능을 갖는 「のだ」는 「설명」 「환언」 「해석」 「서두」 「구체화」 「추론」 등으로 선행문맥과 「のだ」가 사용된 사태의 관련성이 명시적이다. (15) 설명은 선행문맥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어 화자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장면이다. (16)환언은 선행문맥의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장면이다. (17)해석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 사실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18)서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화자의 상황을 언급하는 장면이다. (19)구체화는 선행문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다. (20)추론은 선행문맥으로 야기되는 결과를 유추해내어 서술하는 장면이다.

#### (15) 설명

A: 確か、明日でしたよね? 旅行に行く日は

B: 旅行は取りやめました。昨日、妻が急に入院したんです。

#### (16) 환언

A: 前回の留学は失敗だったという話は本当ですか。

B: ええ、前回は自分自身の問題で失敗しました。

自分のやる気の無さに問題があったんです。

#### (17) 해석

(落ちていた財布を見つけて)

A: 見て見て! これ財布じゃない? きっと、誰かが落としたんだ。

#### (18) 서두

A: 告白したいんですが、タイミングが分かりません。

B: タイミングは自分で見極めるしかありません。

(19)구체화

A:先は友達から連絡がありました。親友が事故に遭って入院したらいいんです。

B:お見舞いに行く方がよさそうですね。

(20)추론

A:どうして山田さんは電話に出ないのですか?

B:今、会議に出席しています。たぶんそれで電話を取れないみたいなんです。

### 3.2.3 태도 표명의 기능

태도 표명의 「のだ」에는 「실정<sup>5)</sup>의 제시」 「교시」 「명령」 「재인식」 「강한 주장」 「인식 강요」 등이 있다. 선행 문맥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화자의 심적 태도에 의해 「のだ」가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21)실정의 제시는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기정 사태를 제시하는 장면이다. (22)교시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다. (23)명령은 상대방이 행동해야 바람직한 사실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24)재인식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잊고 있다 다시 인식하는 장면이다. (25)강한 주장은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기정성이 강한 화자의 결심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26)인식 강요는 상대방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화자의 기정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장면이다.

(21) 실정의 제시

A:今日は気分転換に口紅をつけてみたんです。

B: あっ、そう言われればそうですね。なかなか、似合ってますよ。

(22) 교시

A:(母)いくら遅くても12時まで帰ってくるんだよ。

B:(娘)うん、わかってる。そんなに遅くならないよ。

(23)명령

A:打て打て、打つんだ!

B:言われなくてもわかっていますよ。

(24) 재인식

A:あっ、そうか。こうやってこの公式を使って解けばいいんだ。

B:やっと気づいたみたいだね。その公式を覚えておいたほうがいいよ。

(25) 강한 주장

A:(先生)お前の実力では東大には無理だぞ。

5) 田野村(1990)는 구체적인 배경과 관련성 있는 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태와 관계하지 않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のだ」의 기능을 「실정」이라 언급했다.

B:(学生)どうしても受験したいんです。

(26) 인식 강요

A:今度の町内マラソン大会誰がよいかなあ。

B:私なんてどうですか？

A:42.195キロです。普通じゃ、無理ですよ。

B:大丈夫ですってば、高校のときはマラソン全国大会3位でしたよ。長距離にはちょっと自信があるんです。

## 4. 조사 방법

### 4.1 예비 조사

예비 조사에서는 「のだ」의 세 기능에 따른 14범주별로 3문제씩 총 52문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11명)를 대상으로 「のだ」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50% 이상 사용하는 용례 문제를 선별하여 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일본어 모어화자가 「のだ」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50% 이상 사용한다고 판단한 것은 「のだ」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은 기능별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의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 사용률

기능	스코프의 「のだ」		문 연결의 「のだ」						태도 표명의 「のだ」					
	평서문	의문문	설명	환언	해석	서두	구체화	추론	실정	교시	명령	재인식	강한주장	인식강요
사용률	68%	86%	75%	75%	95%	100%	73%	77%	95%	86%	100%	82%	95%	95%

<표1>에서 보면 「서두」, 「명령」은 일본어 모어화자 전원이 「のだ」를 사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석」, 「강한 주장」, 「인식 강요」 등도 「のだ」의 사용에 있어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개인차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6) 예비 조사에서 설명 「환언」의 경우 모든 용례가 「のだ」의 사용률이 50%를 넘지 못했으므로, 다른 용례를 사용하여 재조사하였다. 일본어 모어화자(4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75% 이상이 「のだ」를 사용한 것을 본 조사에 이용했다.



「추론」 「구체화」 「설명」 「환언」 「평서문의 스코프의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 사용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능들은 「のだ」의 사용 이외에도 다른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용례들이다.

「구체화」와 「평서문의 스코프의 기능」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화」의 경우 일본어 모어화자는 「のだ」이외 추량의 모달리티 「みたいだ/ようだ/そうだ」를 사용하였다((27)).

(27)A: 弟さんは最近たくましくなりましたね。

B: はい。運動を始めたみたいです。1日3時間ボクシングジムでトレーニングしてる (a んです/んだそうです)

(b みたいです/みたいなんです)

(c ようです)

(d そうです)

「스코프의 기능」중 평서문의 경우도 일본어 모어화자는 「のだ」이외 「わけだ」를 사용하거나 양쪽 다 사용하였다((28)).

(28)A: そんなに飲み会ばかりしていたら、体を壊しますよ。

B: 飲み会に行きたくて、行っている (a んじゃないません)

(b じゃないんですよ)

(c わけじゃないです)

(d わけじゃないんです)

예비 조사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 사용률이 68% 이상이였다. 위의 「のだ」 용례를 대상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기능별 「のだ」 사용률을 조사한다.

## 4.2 본 조사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이하, 일본어 학습자로 한다)의 「のだ」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のだ」의 기능에 따라 사용의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습득 과정도 알 수 있겠다.

조사 문제 수는 총 28문제(14기능×2문제)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어 학습자(3학년:21명, 4학년:25명)로 H대와 S대 일본어과 학생이다. 일본 체재 경험을

가진 학생은 46명 중 9명으로, 8명은 1년, 1명은 6개월이다.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습량이 많으므로 4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 수준이 높다고 간주한다.

조사는 전체 회화문을 읽고 괄호 안에 적절한 표현을 적게 하였다. 아래의 표는 조사 용지의 일례이다.

次の対話文をよく読んで、( )の中に適切な表現を書いて自然な文を完成してください。

A:そんなに飲み会ばかりしていたら、体を壊しますよ。

B:飲み会に行きたくて、行っている( )。

## 5. 조사 결과 및 고찰

### 5.1 「のだ」의 전체 사용률

<표2>는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의 기능별 전체 사용률을 나타낸다. <표2>에서 「のだ」의 전체 사용률은 3학년의 경우, 「스코프의 「のだ」의 전체 수 84개(2범주×2문제×21명)중 39개의 「のだ」가 사용된 것이다. 문 연결의 「のだ」의 전체수 252개(6범주×2문제×21명)와 태도 표명의 「のだ」의 전체수 300개(6범주×2문제×25명)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한다<sup>7)</sup>.

<표2> 「のだ」의 전체 사용률

기능 학년별	스코프의「のだ」		문 연결의「のだ」		태도 표명의「のだ」	
	3年生 (21명)	4年生 (25명)	3年生 (21명)	4年生 (25명)	3年生 (21명)	4年生 (25명)
「のだ」의 사용률	39/84 (46.4%)	56/100 (56.0%)	57/252 (22.6%)	84/300 (28.0%)	77/252 (30.6%)	111/300 (37.0%)

「のだ」의 전체 사용률을 보면 스코프의 「の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50% 이하이다. 스코프의 「のだ」에서 4학년이 56% 사용한 것 이외에, 문 연결의 「のだ」와 태도 표명의 「のだ」에서는 40% 이하이다.

그리고 문 연결의 「のだ」에서는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학습 경력이 많은 쪽(4학년>3학년)이 세 기능의 「のだ」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코프의 「のだ」 > 문 연결의 「のだ」 > 태도 표명의 「のだ」

7) <표2>에서 「のだ」의 전체 사용률은 4학년의 경우, 25명이므로 스코프의 「のだ」의 전체 수 100개(2범주×2문제×25명)중 56개의 「のだ」가 사용된 것이다.

순으로 「のだ」의 사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사용률은 「스코프의 「のだ」 > 태도 표명의 「のだ」 > 문 연결의 「のだ」」 순으로 나타났다. 문과 문의 관계성에 의해 「のだ」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문 연결의 「のだ」보다, 화자의 심적 태도에 의해 「のだ」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태도 표명의 「のだ」 쪽이 사용률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은 목표 언어권의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의 사용과의 차이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 환경에 따른 「のだ」의 사용현황에 대해 고찰도 필요하다.

태도 표명의 「のだ」 쪽이 문 연결의 「のだ」보다 사용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5.2 「のだ」의 기능별 사용률」에서 고찰한다.

## 5.2 「のだ」의 기능별 사용률

조사 결과,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사용률은 「스코프의 「のだ」 > 태도 표명의 「のだ」 > 문 연결의 「のだ」」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어 학습자의 사용률이 높은 순으로 고찰해 간다.

### 5.2.1 스코프의 「のだ」

<표3>은 일본어 학습자의 스코프의 「のだ」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3> 스코프의 「のだ」 사용률

스코프의 「のだ」		3학년(21명)	4학년(25명)
평서문	문1	6(28.6%)	7(28.0%)
	문15	6(28.6%)	15(60.0%)
합 계		12(28.6%)	22(44.0%)
스코프의 「のだ」		3학년(21명)	4학년(25명)
의문문	문2	9(42.9%)	14(56.0%)
	문16	17(80.9%)	23(92.0%)
합 계		26(61.9%)	37(74.0%)

스코프의 「のだ」 사용률을 살펴보면, 「평서문」보다 「의문문」 쪽이 「のだ」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평서문」의 경우 3학년은 12명(28.6%<sup>8)</sup>), 4학년은 22명(44.0%), 「의문문」의 경우 3학년 26명(61.9%), 4학년 37명(74.0%)으로 나타났다.

(29)는 가장 사용률이 높았던 의문문의 스코프의 「のだ」 예로, 「どうして」와 같이 사용되는 예이다. (30)은 「いつ」와 같이 사용되는 「のだ」의 예이다.

8) 「のだ」의 사용률은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의 사용수 ÷ 전체 「のだ」 수(3학년42명, 4학년50명)×100로 계산한다.

(29) 문(16): 3학년 17명(80.9%), 4학년 23명(92.0%)

A:久しぶりに髪を短くしてみました。

B: どうしてそんなに短く切ったんですか。

(30) 문(2): 3학년 9명(42.9%), 4학년 13명(52.0%)

A:いつ帰ってくるんですか。

B:まだわかりません。

(29)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태에 관한 사정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며 이유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다. (30)은 돌아오는 시간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다. 청자에게 이유를 묻는 「どうして」가 사용된 쪽이 「いつ」가 사용되는 경우보다 「のだ」 사용률이 높았다. 3학년도 4학년도 「どうして」와 「のだ」가 같이 사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서문의 스킴프의 「のだ」 사용률을 살펴보기로 하자.

(31) 문(15): 3학년 6명(28.6%), 4학년 15명(60.0%)

A:今日もまた一生懸命掃除をしていますね。

B:掃除をしたくてやっている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

(32) 문(1): 3학년 6명(28.6%), 4학년 7명(28.0%)

A:そんなに飲み会ばかりしていたら、体を壊しますよ。

B:飲み会に行きたくて、行っている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

(31)의 평서문 「んじゃない」의 경우, 3학년에서는 「のはない」(4명)를 사용한 형태적 오용이 보이고, 「ことじゃない」(2명) 등을 사용했다. 4학년에서는 형태적 오용은 보이지 않으나, 「のだ」대신 「わけではない」(2명) 「ことじゃない」(2명)로 사용하고 있었다. (32)에서 4학년의 경우 「わけではない」(6명)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문문보다 평서문 쪽이 「のだ」의 사용률이 낮은 것이다. 「わけだ」의 사용은 일본어 모어화자와 일본어 학습자의 사이에 공통적이다<sup>9)</sup>.

### 5.2.2 태도 표명의 「のだ」

<표4>는 태도 표명의 「のだ」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3학년과 4학년의 사용률 차이를 파악하기 쉽게 25%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9) 참고 자료의 「일본어 학습자의 회답 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표4> 태도 표명의 「のだ」 사용률

태도표명의 기능	0~25%		25~50%	
	3학년(21명)	4학년(25명)	3학년(21명)	4학년(25명)
실정의 제시[문9/23]	-	-	14(33.3%)	25(50.0%)
교시[문10/24]	-	-	14(33.3%)	20(40.0%)
명령 [문11/25]	8(19.0%)	12(24.0%)	-	-
재인식[문12/26]	-	-	16(38.1%)	20(40.0%)
강한 주장[문13/27]	-	11(22.0%)	12(28.6%)	-
인식 강요[문14/28]	-	-	12(28.6%)	24(48.0%)

<표4>에서 태도 표명의 「のだ」 사용률을 보면, 3학년의 경우 「재인식」 실정의 제시·교시> 강한 주장·인식 강요> 명령」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실정의 제시> 인식 강요> 교시·재인식> 명령> 강한 주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능에서 「のだ」의 사용률이 3학년보다 4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주장」만 3학년이 4학년보다 약간 사용률이 높았다.

태도 표명의 기능에서 「のだ」 사용률이 가장 높은 (33)인식 강요의 예를 들어 보자.

(33) 문(14): 3학년 8명(38.1%), 4학년 17명(68.0%)

A: 今度の町内マラソン大会誰がよいかなあ。

B: 私なんてどうですか?

A: 42.195キロです。普通じゃ、無理ですよ。

B: 大丈夫ですってば、高校のときはマラソン全国大会3位でしたよ。長距離にはちょっと自信があるんです。

(33)은 상대방이 화자의 말을 믿어 주지 않기 때문에 청자에게 기정 사태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장면으로 일본어 학습자의 「のだ」 사용률이 높았다.

그리고 (34)실정의 제시, (35)교시, (36)재인식의 사용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문(9): 3학년 7명(33.3%), 4학년 14명(56.0%)

A: 今日は気分転換に口紅をつけてみたんです。

B: あっ、そう言われればそうですね。なかなか、似合ってますよ。

(35) 문(24): 3학년 7명(33.3%), 4학년 12명(44.0%)

A: お客様！今、お買い求めになれるサービスで、もう一つ付いていくる

んですよ。

B:あら、それなら一つ買おうかしら。

(36) 문(26): 3학년 7명(33.3%), 4학년 10명(40.0%)

A:あっ、レポートの締め切り今日までだったんだ。

どうしよう、忘れたよ。

B:本当?わたしはもう提出したよ。

(34)는 기분전환을 위해 립스틱을 발랐다는 기정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35)는 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인 기정 사태를 알려주는 장면이다. (36)은 오늘 까지 마감이라는 기정 사태를 재인식하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태도 표명의 기능은 구체적인 선행 문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정 사태를 제시한다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のだ」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태도 표명의 「のだ」의 기능 중에서 (37)명령, (38)강한 주장의 「のだ」 사용률이 가장 낮았다.

(37) 문(11): 3학년 3명(14.3%), 4학년 5명(20.0%)

A:打て打て、打つんだ!

B:言われなくてもわかってますよ。

(38) 문(27): 3학년 4명(19.0%), 4학년 3명(12.0%)

A:絶対大丈夫です。あれだけ勉強したんです・んですから

B:そんなに勉強したのですか?では今回はあなたに期待しますね。

「명령」 「강한 주장」은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사용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のだ」 사용률이 낮으므로 구체적 장면 설정을 하여 담화 레벨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 5.2.3 문 연결의 「のだ」

<표5>은 문 연결의 「のだ」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3학년과 4학년의 사용률 차이를 파악하기 쉽게 25%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표5> 문 연결의 「のだ」 사용률

사용률 문연결의기능	0 ~25%		25~50%	
	3年生(21명)	4年生(25명)	3年生(21명)	4年生(25명)
설명[문3/17]	8(19.0%)	-	-	14(28.0%)
환언[문4/18]	10(23.8%)	9(18.0%)	-	-

해석[문5/19]	9(21.4%)	-	-	13(26.0%)
서두[문6/20]	10(23.8%)	-	-	21(42.0%)
구체화[문7/21]	-	-	13(30.9%)	17(34.0%)
추론[문8/22]	8(19.0%)	11(22.0%)	-	-

<표5>에서 문 연결의 「のだ」 사용률을 보면, 3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0~25%, 4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25~50%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구체화> 환언·서두> 해석> 설명·추론」의 순으로 「のだ」의 사용률이 높았다. 4학년의 경우, 「서두> 구체화> 설명> 해석> 추론> 환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서두」의 「のだ」 사용률이 가장 높다. 「서두」는 관용 표현처럼 「のですが」가 의뢰 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9) 문(20): 3학년 7명(33.3%), 4학년 14명(56.0%)

A:スピーチ大会に応募したいんですが, まだ間に合いますか?

B:申し訳ございません。昨日で締め切りました。

(39)는 의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사정 얘기를 먼저 언급하는 경우에 「のだ」가 사용되고 있다. 기정 사태를 언급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のだ」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화」의 경우, 문제별로 사용률이 차이가 크다. (40)은 「のだ」의 사용률이 낮으나, (41)은 「のだ」의 사용률이 높다.

(40) 문(7): 3학년 2명(9.5%), 4학년 0명(0%)

A:先ほど友達から連絡がありました。

親友が事故に遭って入院したらしいんです。

B:お見舞いに行く方が良さそうですね。

(41) 문(21): 3학년 11명(52.4%), 4학년 17명(68.0%)

A:なんか、嬉しそうですね。

B:はい、実は就職が決まりました。半導体会社でエンジニアとして働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

(40)은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추량의 모달리티 「らしい」가 사용되어 있어, 또 다른 모달리티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41) 「취직을 했다」라는 사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는 경우이다. 문 연결의 기능에서 두 사태의 관련성이 명확한 것으로 「のだ」의 사용률이 높은 예이다.

또한 「のだ」는 「설명의 모달리티」라고 할 만큼, 「설명」은 「のだ」의 대표적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のだ」 표현보다 이유를 나타내는 「から」를 사용하고 있다.

(42) 문(3): 3학년 4명(19.0%), 4학년 3명(12.0%)

A: 確か、明日でしたよね? 旅行に行く日は

B: 旅行は取りやめました。昨日、妻が急に入院したんです/からです。

「여행을 중지했다」라는 사태와 관련된 이유로 「아내가 갑자기 입원했다」라는 기정 사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のだ」 뿐만 아니라 「から」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のだ」의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론과 향후 과제

본 연구는 「のだ」의 기능별 「のだ」 사용률을 조사했다. 일본어 학습자는 「のだ」의 사용 여부가 문 내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스코프의 「の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화자의 심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태도 표명의 「のだ」가 문과 문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되는 문 연결의 「のだ」보다 사용률이 높았다.

스코프의 「のだ」에서는 「평서문」보다 「의문문」 쪽이 「のだ」 사용률이 높았고, 태도 표명의 「のだ」에서는 「실정의 제시」, 「인식 강요」, 문 연결의 「のだ」에서는 「서두」, 「구체화」가 사용률이 높았다.

일본어 모어화자 조사에서도 태도 표명의 「のだ」 쪽이 문 연결의 「のだ」보다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문 연결의 「のだ」의 경우, 다른 표현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도 표명의 「のだ」는 기정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적 특징이 강한 표현들이므로 「のだ」 이외의 대체 표현이 없는 것들로 「のだ」의 사용률이 높았다.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도, 이미 학습한 문법 항목 중 사용하기 쉬운 표현을 문 연결의 「のだ」 대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のだ」의 기능별 일본어 모어화자의 「のだ」 사용률과 일본어 학습자의 사용률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일본어 학습자의 체계적인 「のだ」의 습득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필



기 조사가 아니라 구두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のだ」의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예상되는 교재, 학습 언어 환경, 학습자의 모어 등에 주목하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参考文献】

- 조남성(2005)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のだ」 오용에 대하여」 『동북아 문화연구』 제8집 동아시아 문화학회 pp.1-21
- 최진희(2006) 「「のだ」と「것이다」の対照研究—文法化の度合いの違い—」 『日本文化学報』 第29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27-42
- 大場理恵子(1992) 「「のだ」文の用法と教科書分析及び習得過程について」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4 お茶の水女子大学内日本言語文化研究会 pp.50-55
- 佐々木陽子(1995) 「日本語学習者による「んです」文に対する判断について」 『平成7年度日本語教育学会秋季大会予稿集』 日本語教育学会 pp.75-80
- 田野村忠温(1990)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 和泉選書
- 坪根由香里(1997) 「「ものだ」「ことだ」「のだ」の理解難易度調査」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 1 第二言語習得研究会 pp.137-155
- 花城可武(2000) 「「のだ」文の習得—縦断的調査と横断的調査の結果を通して—」 『南山日本語教育』 7 南山大学大学院外国語研究科 pp.32-47
- 村松恵子(1995) 「中国語話者の誤用例から見た日本語「のだ」の表現」 『名城大学人文紀要』 第49集(30-2) 名城大学人文研究会 pp.27-40
- 野田尚史(2001) 「第6章 文法項目の難易度」 『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 大修館書店 pp.101-120
-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참고자료】**  
「일본어 학습자의 회답 내역」

내역		문제	스코프의 「のだ」	
			3학년(21명)	4학년(25명)
평서문	1	のだ6/中4/から2/もの1/だけ1/ところ1/こと1/のも1/しか1/くせに1/無2	のだ7/わけだ6/ところ3/こと2/だけ2/から2/はず1/けど1/無1	
	15	のだ6/のはない4/もの1/こと2/だけ3/中1/から1/無3	のだ15/ことだ2/わけだ2/のは1/から1/だけ1/その他2/無1	
의문문	2	のだ9/つもり8/予定だ1/ですか1/その他1/無1	のだ14/つもりだ7/予定だ4	
	16	のだ17/ですか/その他1/無2	のだ23/わけだ1/無1	
내역		문제	문 연결의 「のだ」	
			3학년(21명)	4학년(25명)
설명	3	のだ4/ので・から13/ため1/はず1/その他2	のだ3/ので・から17/ために1/ものだ1/ことだ1/せいで1/その多1	
	17	のだ4/そうだ3/みたいだ3/ようだ2/です3/ので2/よ1/その他1/無2	のだ11/みたいだ4/そうだ2/ものだ2/ことだ1/ようだ1/らしい1/その他2/無1	
환언	4	のだ4/ので・から7/と思う5/わけだ1/ようだ2/そうだ1/ですよ1	のだ3/ので・から8/と思う5/はずだ4/ようだ2/そうだ1/ものだ1/その他1	
	18	のだ6/です10/ようだ1/その他1/無3	のだ6/です9/もの다3/こと다2/よ1/ね1/その他2/無1	
해석	5	のだ4/もの다8/はず3/よう다1/らしい1/と思う1/のに1/なあ1	のだ6/もの다6/はずだ3/にちがいない2/かもしれない1/よう다1/らしい1/みたいだ1/ことに1/その他3	
	19	のだ5/だろう5/よう다1/らしい1/そう다1/はず다1/みたい다1/もの다1/から1/かな1/無3	のだ7/はず다6/みたい다4/らしい3/よう다1/そう다1/もの다1/かな1/ぞ1	
서두	6	のだ3/です11/と思う3/その他2/無2	のだ7/です8/と思う6/ことが1/その他3	
	20	のだ7/です12/無2	のだ14/です8/と思う2/こと다1	
구체화	7	のだ2/です11/そうだ3/ということ다1/その他1/無3	のだ0/です23/けど1/その他1	
	21	のだ11/です9/無1	のだ17/です2/から2/もの다1/こと다1/その他1/無1	
추론	8	のだ3/です7/よう다2/そう다3/と思う1/だろう1/その他2/無2	のだ3/です18/はず다2/かもしれない1/その他1	
	22	のだ5/らしい4/はず다2/こと다2/です1/もの다1/と思う1/その他2/無3	のだ8/よう다4/みたい다3/と思う2/もの다1/こと다1/らしい1/です1/かな1/その他2/無1	

내역		문제	태도 표명의 「のだ」	
			3학년(21명)	4학년(25명)
실정 제시	9	のだ7/です7/みたいだ2/だろうか1/ その他3/無1	のだ14/ことに3/よ3/です2/ところ1/ ので1/けど1	
	23	のだ7/です4/のは3/その他2/無5	のだ11/です2/ことだ2/はずだ1/という 1/ように1/はずだ1/その他1/無6	
교시	10	のだ7/だろう2/ように2/よ3/から1/べ きだ1/その他4/無1	のだ8/ようだ4/はずだ1/べきだ1/だろ う1/よ3/ね1/その他5/無1	
	24	のだ7/べきだ4/です3/よ3/だろう1/こ と1/ほうがいい2	のだ12/はずだ3/ことだ3/ものだ2/だ ろう1/ように1/その他1/無2	
명령	11	のだ3/なさい2/べく3/ってば3/よ 2/ぞ1/べきだ1/その他1/無5	のだ5/よ5/ぞ1/な1/ように1/その他4/ 無8	
	25	のだ5/べきだ4/だろう1/はずだ1/そ うだ1/ように1/その他2/無7	のだ7/べき다2/ようだ1/こと다1/だ로 う1/もの다1/ぞ2/かな1/その他2/無7	
재인식	12	のだ9/だろう3/ことだ1/じゃないか1 よね2/ね1/だ2/か1/無1	のだ10/です6/ね4/と思う2/ようだ1/ じゃない1/か1	
	26	のだ7/か3/だろう1/そうだ1/です1/ よね2/から1/のに1/無4	のだ10/のに4/つけ3/だろう2/わ2/そ うだ1/みたいだ1/わ2/かしら1/無1	
강한 주장	13	のだ7/です9/のに2/と思う1/その 他1/無1	のだ9/です11/と思う3/のに2	
	27	のだ4/ので·から8/します1/その他 3/無5	のだ3/ので·から14/こと다1/もの다1/ その他4/無2	
인식 강요	14	のだ8/ので·から6/よ5/無2	のだ17/から3/もの다1/です1/その他 2/無1	
	28	のだ4/から5/はず다1/もの다1/よ1 その他2/無7	のだ7/です3/わけ다3/ので·から3/하 ず다1/と思う1/よ1/その他3/無3	

## 要 旨

本研究では「のだ」の機能別使用率を調査した。韓国人日本語母語話者は「のだ」の使用が文の中の要素によって決められるスコープの「のだ」を最も多く使用している。次に、談話レベルで話し手の心的態度によって決められる態度表明の「のだ」が文と文の関係性によって決められる文連結の「のだ」より使用率が高かった。

日本語母語話者もスコープの「のだ」の使用率が最も高く、文連結の「のだ」より態度表明の「のだ」のほうに使用率が高かった。文連結の「のだ」の場合、他の表現と代替できるからである。態度表明の「のだ」は既定の事態を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場面の特徴が強いため、「のだ」以外代替できる表現がない。

韓国人日本語学習者も日本語母語話者と同じ傾向が見られた。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既に学習した文法項目の中で使用可能な表現を文連結の「のだ」の代わりに使用していた。

キーワード：「のだ」、「のだ」の使用率、スコープの機能、文連結の機能、話者態度表明の機能、文法化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302-809)대전시 서구 갈마2동 352-15 갈마타운C101  
電 話 : 010-2305-5229  
e-mail : chejiny@hotmail.com

住 所 : (305-719)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16-318-9154  
e-mail : chons@hanbat.ac.kr